

환경

불법어망에 몸살앓는 영산강

수질오염·생태계 파괴 주범... 울들어 120t 수거

어망 대형화로 수거 어려워... 산란기때 피해 심각

영산강이 어민들이 설치한 불법어망에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어망이 영산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데도 예산 부족과 관계기관의 단속 노력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울들어 첫 지난 한달 간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전남도에 영산강 유역암천과 영산강에서 불법어망(삼각망 등) 수거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20t을 수거했다.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영산강 수질개선과 정화

2008년 200t, 2009년 180t, 2010년 170t, 지난해 150t을 수거했다. 불법 폐어망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홍수기 갯강 등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걸려 가라앉으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민들은 불법어망으로 영산강에서 서식하는 붕어와 잉어, 동자개 등을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봄철 어류 산란기에는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눈에 띄지 않는 대형 신규 어망들이 새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어망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어 수거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영산강 본류의 경우

전남도청의 60t급 정화선을 통해 정기적인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갯강의 경우는 좁은 수로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아 소형 어선을 동원해 순수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최근 영산강 내 어선 감축 등으로 인해 수거작업을 진행할 인력과 어선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김경봉(61)의장은 "올해는 새 어망이 유난히 많이 발견됐지만, 어망의 무게가 1t을 넘는 경우도 있어 수거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며 "어민들의 의식이 개선 되어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지도와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설립된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는 ▲환경 교육 ▲투기 쓰레기 수거 ▲간벌 폐목 수거 ▲불법경작 방지 운동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영산강 지류인 영암천 등지에서 수거한 불법어망을 60t급 정화선으로 옮겨 실고 있다.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제공>

광주·전남 환경이야기 <6>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도움이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탄소배출 줄이기를 실천해 보자.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1800만대로 국민 2.75명당 1대꼴로 늘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휘발유 가격이 1ℓ에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환경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걸거나

생활속 탄소배출 줄이기, 내가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차량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도 지키고 비용도 줄이며 건강도 챙기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민간 보험사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가 7000km를 넘지 않을 경우, 일정비용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돌려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중 240만 장 가량이 발급됐고, 참여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지역 은행권,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은행에서 받



박종열 영산강유역 환경청팀장

괭이갈매기 최소 15년 산다

괭이갈매기의 수명이 최소 15년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괭이갈매기의 최대 번식지인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흥도에서 괭이갈매기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15년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명확히 규명된 적이 없는 괭이갈매기의 수명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 흥도 괭이갈매기 연구팀은 흥도 연구소에서 최소 11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 개체를 확인했다. 연구원의 권영수 박사는 흥도에서 2002~2003년 괭이갈매기 109마리에 표식용 가락지를 단 뒤 추적조사한 결과 2008년에 16.5%인 18마리, 2012년에 7.3%인 8마리를 재발견했다. 괭이갈매기는 매년 같은 암수가 번식을 위해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고, 번식할 수 있으려면 생후 최소 4~5년이 걸리므로 11년 이상 관찰된 개체는 최소 15살이라



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번식지를 다시 찾는 회귀율은 2008년 수컷 13.8%, 암컷 13.7%로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수컷 12.06%, 암컷 1.96%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컷의 회귀율이 더 높았다. 연구원 측은 관찰이 더 진행되면 괭이갈매기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괭이갈매기는 몸길이 약 46cm, 날개 길이 34~39cm의 중형 갈매기로 머리와 가슴·배는 흰색이고 날개와 등은 잿빛이다. 한국·일본·중국·연해주 등의 바다·해안·하천에서 무리 생활을 하며 1차례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연합뉴스

“장롱 속 휴대전화로 이웃 도와요”

광주시, 폐 휴대전화 모으기 운동 센터, 학교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시민 참여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우선 시청과 산하 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1인 1휴대전화 수거 등 집중적으로 모을 계획이다. 참여 희망 시민은 폐 휴대전화를 가까운 관공서나 동주민센터 등에 기부하면 된다. 폐 휴대전화를 기부한 시민에게는 시 산하 우치공원과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무료입장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학교를 통해 기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환경노트 등 기념품도 지급한다. 폐 휴대전화 매각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해양 온난화 주범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전 세계 바다의 상층부 온도 상승 현상은 인간 활동 때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고 라 이브사이언스닷컴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이 네이처 기후변화와 지에 발표한 이 연구의 결론은 지난 50년간 수온이 올라가는데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결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년 주기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기후 순환 현상과 인간이 환경에 일으킨 변화를 구분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연구진은 성명을 통해 “이 연구는 지난 50년간 일어난 해양 온난화의 대부분이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크게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0년간 전세계 바다 표면으로부터 수심 700m 사이의 수온은 10년에 0.025도 꼴로 상승해 왔다. 이는 대기 온난화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물이 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대기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이다. 바다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열을 저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좋은 실내 공기질 인증제도 시범 실시

실내의 공기질이 좋은 다중이용시설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실내 공기질 현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좋은 실내 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증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실내 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다. 환경부는 신청 업소를 가운데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시설이용 관리 실태 조사 등 정밀진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최종 30곳을 시범 인증 업소로 선정, ‘좋은 실내 공기질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하고, 환경부장관 표창,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한국공기청정협회(전화 02-553-4156~7·팩스 02-553-415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에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합)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지면녹지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지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용 492천 매매가 8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임대료 20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안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칭 창고도로 접합 ■ 비어있는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2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함평면, 창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분할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0223-1772, 011-002-2532 (광주영천 신분점, 마포동 소정리2단지)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북산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북산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우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면적 400평(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 1,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시정영양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능)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영양) (회사사무,오피스빌등 적합) ■ (동림지구)중주거지 용안-하남 간대로변 4,470㎡(약 1,352평) - 평당 330만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시십시요 (FAX)383-3221, 011-609-5221 (상무지구-이비동-갈매리 1층) 상가/원룸 매매 ▶ 총합계 : 보증금 4,500만원 월세 800만 ▶ 1층원룸 원룸 21개, 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100P) ▶ 건축면적 : 737.19㎡(223P) ▶ 매매가 7,944천만 (용지 2억4천4백 포함)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8백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무자금 4억5천 원수익 678만원 연수익율 18%, 편의성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 문의 : 011-684-3886 오피스텔 매매 ▶ 총 합계 : 보증금 8,250만원 월세 1,425만 ▶ 지하/현대문자시장 1 ▶ 사무실 1, 10평 27.11억 67%, 13평 4 ▶ 토지면적 : 509.09㎡(154P) ▶ 건축면적 : 1375.21㎡(416P) ▶ 매매가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억 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무자금 6억9천만 원수익으로 월수익 1,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로 아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011-684-3886